

#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사유, 화폭에 담아”

“슬픔이 슬픔을 치유하고,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것만을 그리면 자칫 아름다운 것만 느끼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상처는 고스란히 내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을 드러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투영했어요.”

‘별들의 파편’이라는 작품 앞에서 기자는 ‘뭔가 작품에서 아련한 상처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화가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파편이 흩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답했다.

별들의 파편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얼핏 무리지어 피어난 꽃 같기도 했다. 아니 무수히 많은 이들의 아픔과 상흔이 응결된 흔적으로도 보였다. 작가는 별들이 지닌 상처의 무게를 일일이 헤아리며 작업을 했을지 모른다.

한희원 작가. 50여 년간 자신만의 화풍을 일구어 온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다. 문화예술의 보고(寶庫)인 양림동이 배출한 우리 시대의 예술가다.

한 작가가 7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5, 6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연다. 주제는 ‘한희원: 존재와 시간’.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시 준비로 분주한 그를 시립미술관에서 만났다. 주제가 다소 철학적이란 물음에 대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사유를 화폭에 담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작품 ‘별들의 파편’에 대해 “우리 인간의 존재, 오늘날 직면한 전지구적인 아픔을 은유적으로 그렸다”며 “제동장치 없이 무한 경쟁과 무분별한 개발로 치닫는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초기 작품을 비롯해 사회현실,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서사를 주제로 풀어낸 신작까지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이 출품됐다. 회화 53점과 아카이브 30여 점은 50여 년 작업을 망라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됩니다.

## ‘한희원: 존재와 시간’ 전

7일~12월 7일 광주시립미술관

초기작부터 신작 ‘생 시리즈’까지

회화 53점·아카이브 30여 점 전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와 삶의 본질에 천착한 ‘피안의 시간’을 비롯해 우리 생에 대한 갈망과 여러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린 ‘생의 노래’, 서정적인 풍경화와 자연의 심상을 담은 ‘바람의 풍경’ 그리고 5월과 민중의 문제를 다룬 초기 ‘민중의 아리랑’이 그것이지요.”



한 작가를 아는 이들은 대체로 그의 작품 궤적을 알고 있다. 화풍의 변화와 함께 작품세계도 변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예술에 대한 심미안, 예술과 사유를 두 축으로 구도자처럼 묵묵히 걸어온 날들의 기록은 한편의 서정시 내지는 서사화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는 전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깊은 상처’를 꼽았다. 의외였다. 잣나무나 참나무, 즉백나무 같은 삼각형 모양의 검은 나무는 우울하면서도 ‘침잠’의 분위기를 피워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자의 모습을 닮았다. 모진 풍상을 이겨낸 시대의 어른 같기도 했고, 저항해야 할 어떤 표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저는 하나의 나무만 그림입니다. 여러 나무를 그리다보면 하나의 존재로서 그 나무가 보이지 않지요. 단순한 풍경 속에 드러워진 하나의 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존재 교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

무를 통해 생을 그린다고나 할까요. 오랜 기간 말없이 가혹한 고통과, 슬픔, 아픔을 견딘 나무의 생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닮았습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일정 부분 작가를 닮기 마련이다. 작품에는 작가의 페르소나가 투영될 수밖에 없다. 그를 볼 때면 고전적인 예술가 외에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구도자처럼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신부나 목사의 모습이 비쳐진다. 더러는 시대의 아픈 현장에서 고뇌하고 절규하는 청춘의 느낌도 묻어난다.

초창기 조선시대 재학시절이나 수선여상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의 작품은 민중성에 기반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의 청년기 작품들 ‘섬진강 아리랑’, ‘아리랑 연작’, ‘보성강에서’ 등은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하고 사실적이다.

자연의 심상을 서정적이며 몽환적으로 형상화한 ‘바람의 풍경’ 섹션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을’, ‘신작로가 있는 읍내 마을’ 등은 젊은 시절 한 작가의 쓸쓸하면서도 어린 내면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그림들이다.

2019년 조지아로 떠나기 이전의 작품들은 다분히 은유적이다. ‘생의 노래’ 섹션은 ‘꽃과 새’, ‘몽유화’ 등의 작품들은 깊은 사유의 결실들이다.

“조지아를 다녀오고 나서 작품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지아의 푸른 빛, 푸른 색깔은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곳에 스스로를 ‘유폐’ 시키고 매일 매일 밤에 처박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가의 작품은 점차 ‘피안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작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였다. 말에서 이후 펼쳐질 예술의 방향이 가늠된다.

“존재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탄생부터 죽음 사이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감정들, 일테면 사랑이나 기억, 상처 등이 발현하는 감정에 집중했어요. 아마도 존재의 본질, 존재의 시간은 스스로가 느끼고 발현하는 감정과 가장 깊이 연계돼 있을테니까요.”

한편 한 작가는 조선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남구 곳모닝 양림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지, 별, 바람 그리고 생의 시간’ 전(한천아트센터)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저서 ‘이방인의 소모’를 펴냈다. 광주시민대상, 원진미술상, 대동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 한희원 작가가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존재와 시간’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2. ‘구레 가는 길’



## AGI가 인간의 인지신경을 통제한다면?

ACC의 창제작 연극 ‘지정’이 11월부터 전국의 관객들을 만난다.

〈ACC 재단 제공〉

### ACC ‘지정 Self-Designation’ 11월18~19일 공연...용인·부산서도 무대

영화와 재학생 제니는 AGI(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정신과 의사 콜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심리를 조절한다. 이후 세계적인 영화제를 목표로 자신만의 작업을 완성해간다.

범용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신경을 통제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 전국 관객들을 만난다. 연극은 인간성과 첨단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이색적인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신경을 통제한다는 내용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연극 ‘지정 Self-Designation’이 11월 전국의 관객을 만난다고 밝혔다. ACC 창제작인 이번 작품은 용인시문화회관 처인홀(11월 11~12일) 공연을 시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11월 18~19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11월 23~24일)에서 펼쳐진다.

실험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박정희 연출과 비인간의 관점에서 작업을 펼치는 장우재 작가가 기기투합했으며 지난 2021년 9월 ACC 예술극장 초연 당시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는 초연을 빛내줬던 이호재, 홍선우, 문병설, 김강민을 비롯해 연극계 베테랑 배우 백은경, 이영숙, 문예주, 예수빈과 떠오르는 젊은 세대 연극 배우 이경한, 윤예림이 새롭게 합류한다. 다양한 세대의 배우들의 탄탄한 앙상블과 매력적인 연기로 관심을 끈다.

ACC재단 관계자는 “연극 ‘지정 Self-Designation’은 초연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작품으로 이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ACC재단은 좋은 작품을 다양한 지역과 관객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대의 고운 노래는 내 영혼을 위로하고’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5주년 음악회

#### 8일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

영혼을 위무하는 우리 가곡의 청아한 소리.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제164회 기념음악회 ‘그대의 고운 노래는 내 영혼을 위로하고’를 연다. 오는 8일(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

우리가곡부르기는 그동안 2008년 8월부터 가곡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가곡 3400여 곡을 불러왔다. 이번에도 시와 노래가 결합된 가곡 특유의 아름다움에 초청공연을 가미해 서정적 아름다움을 관객들과 나누는 계획이다.

광산구립합창단(지휘 박호진)의 ‘목련’, ‘그대

뒷모습’ 등 26곡을 회원들이 연주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 집 앞’ 등 잘 알려진 곡은 관객과 함께 부를 예정이다. 김홍호 시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이나 최동호 시 ‘문득 생각난 사랑’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혼성중창단이 부르는 ‘목장의 노래’도 감상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센트성악교실(지휘 김선주)의 ‘추억’과 ‘고독’ 등 초창연주도 울려 퍼진다. 초창성악가 바리톤 조재경은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호남신대 객원교수로 학생들을 지도 중이다. 이날 무대에서 허림 시 ‘마중’과 신홍철 시 ‘산야’를 울려 퍼뜨릴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 초청공연에 오른 소프라노 김지나(왼쪽), 테너 홍영식 부부. 〈우리가곡부르기 제공〉

## 전통 산조와

## 멋스러운 연희



판소리 김윤아



산조 박훈

###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매주 토요일 ‘토요상설공연’

전통 산조와 멋스러운 동선을 보여주는 우리 춤 연희를 감상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전통문화관은 이번 달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3시) ‘2023 토요상설공연’을 전통문화관 서석당 너털마당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이한준 산조와 남다모 판소리를 시작으로 한 달간 우리 전통소리와 신명을 담은 곡들로 채울 계획이다.

오는 9일 서석당에서는 ‘국악창작무대’가 예정돼 있다. 가야금 창작자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중주곡을 위한 ‘모여 사는 풍요’라는 주제로 ‘3중주를 위한 회전목마’, ‘그래, 낫설지 않아’ 등을 25현 가야금을 연주하는 그룹 프로덕션 안이 들려준다.

16일에는 너털마당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주제로 연희·무용 공연도 펼쳐진다. 장구와 쇠, 징 등 풍물을 연주하는 소리메꽃 나라가 ‘진쇠춤’, ‘판굿’, ‘비나이다’ 등의 곡에 우리 신명을 담는다.

판소리 산조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이태백류 아쟁산조’(23일 서석당)를 주제로 펼쳐지는 박훈의 아쟁 연주에는 장삼수의 장단이

결들여진다. 또 김윤아 판소리 정광수제 수궁가 중 ‘범피중류 대목·앞내버들은 대목’은 심정을 실은 배가 망망대해를 떠가는 장면으로 김윤아(소리)와 임현빈(고수)의 목소리에 담긴다.

끝으로 무형문화재 초정무대도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 서석당에서 황송옥 가야금명창이 춘향가를 연주하는데 ‘천자뒤풀이 대목’부터 ‘어사와 춘향모 상봉하는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또 ‘단가 호남가’ 등을 고혜수 가야금명창 및 박시양 고수와 선보인다. 무료 공연이며 실시간 온라인 송출.

한편 월말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전통 민속 연희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사)전통연희놀이연구가 오는 9일(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상설절기체험’이 바로 그것.

‘거북놀이’, ‘소원지 쓰기’, ‘제비 접기’와 같이 아이들이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또 딱지치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체험들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